

박기범 기자가 라후나존자를 찾아서

“승복 원단 하나도 부처님처럼”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생활한복 강사 박춘화 보살

“봉사를 통해 새로운 삶이 열렸어요. 봉사는 제 삶의 끈인 것 같습니다.”

박춘화 보살(사진)은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매주 ‘수의·생활한복 만들기’ 강사로 활동 중이다. 박 보살은 직업전문학교 및 문화센터 등에서 생활한복과 수의 제작을 교육하고 있다. 2009년 12월 무형문화재 친선장 11호를 이수한 박 보살은 2003년부터 8년 동안 전국 기능대회 한복분야 금메달을 휩쓸기도 했다.

지금은 복지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강사로 활동 중이지만 박 보살이 처음 한복을 짓게 된 것은 가정 형편 때문이다. 아이들 옷을 직접 만들어 입히면 돈을 좀 아낄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한복 만들기를 배운 것이다. 그렇게 배운 솜씨로 절에 갈 때도 하기 편한 바지를 직접 만들어 입고, 스님들 옷도 수선해줬다. 차츰 솜씨가 좋아지면서부터 스님들 가사를 만들어 드리기도 했다. 20년 이상 가사를 지어 입는 스님들도 있을 정도로 박춘화 보살은 아무진 솜씨를 자랑한다. 박 보살은 다니는 절에서 분병 보다는 ‘한복 보살’로 더 유명하다.

박춘화 보살의 이런 활동이 입소문이 나면서 한 언론사 문화센터에 강사로 초빙됐고, 그 후 곳곳에 강사로 출강 중이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도 처음에는 급식실 자원봉사를 나왔다가 관장 스님께 직접 요청해 강사로 활동 중이다. “수업 시간에는 어르신들과 집안 이야기도 하면서 말씀부가 되어 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어르신들도 한복 만드는 것도 배우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좋다고 하십니다.”

이곳 어르신들은 박춘화 보살이 활동 중인 다른 기관 수강생들보다 나이가 많아 아무래도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박 보살은 다른 곳보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의 수업이 행복하



다. “어르신들은 젊은 학생들처럼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요. 그러다보니 저 역시 세심하게 교육할 수 있고, 봉사를 통해 제 자신도 돌아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박 보살은 봉사활동이 자신의 재능과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박 보살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고 믿는다. 실제로 박 보살은 처음 만들었던 바지를 입고 지역 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솜씨가 알려졌고, 딸의 취업도 봉사활동에서 만난 이웃의 소개로 성사됐다. 봉사활동 인연으로 출강하게 된 기관도 있을 정도다.

박 보살은 한복 짓는 법을 배워 스님들에게 승복을 지어드릴 수 있고,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모두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한다. 많은 돈을 내고 기도를 올리는 것보다 한 뼘 한 뼘 정성 들여 스님들의 승복을 짓다보면 불심이 깊어지고 복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박 보살은 승복을 지을 때면 전화조차 받지 않고, 승복의 원단조차 넘어 다니지 않는다. 승복을 스님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 보살은 수강생들에게도 늘 이런 점들을 유의할 것을 강조한다.

“처음에는 절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이 수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승복을 짓고 봉사활동을 하다보니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이며 수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정성스럽게 승복을 지으며 불심을 닦아가고 싶습니다” 박기범 기자

세계로 ‘나눔’ 템플스테이 알릴 터

불교문화사업 내실화·대중화·세계화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이 불교문화사업의 내실화·대중화·세계화에 박차를 가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올해로 10년 차에 접어든 템플스테이 사업을 대한민국 대표 문화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내부 조직개편을 통한 문화 사업을 새롭게 편성하겠다고 7월 11일 간담회에서 밝혔다. 또한 사찰음식과 관련해 불교문화교육사업과 문화상품 개발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효과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자문위원회·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또한 템플스테이의 운영관리규정 및 운영사찰 성과평가체계표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지정과 평가, 합리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운영사찰의 평준화와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함이다.

템플스테이 홍보 및 참가자 확대를 위해서는 외국인 가이드 교육 시행 및 외국인 가이드 지침서 등을 제작하고, 다국어 홍보물 제작 및 해외 홍보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9월 6-12일 ‘독일 아테주간 홍보 행사’와 9월 20-23일 ‘프랑스 관광 박람회’, 28-30일 ‘프랑스 한국불교 문화 세계화 행사’ 등을 통해 유럽을 중심으로 템플스테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밖에 템플스테이 모바일 콘텐츠 개발, 템플스테이 국제사이트를 오픈해 한국불교 문화를 전달한다.

사찰음식과 관련해서는 발우공양 ‘공’, ‘공감’ 등의 사찰음식점 오픈

템플스테이 관리규정 및 성과 평가체계표준 도입

사찰음식과 유럽 지역에서

적극적 홍보 나설 계획

에 이어 추가 분점개설을 검토 중이다. 각 분점은 고유 BI(Brand Identity) 개발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가 구축된다.

이밖에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역사무소 설치 △템플스테이 전문가 양성 △평가기준을 통해 사찰의 차등 지원 및 템플스테이 체험 상시운영사찰 15개 확대 △SNS 등을 통해 외국인 대상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사찰음

식 인력풀 구축을 위한 교육 강화 등을 진행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지현 스님은 “자성과 쇄신 5대 결사 정신을 반영해 템플스테이를 교육, 문화, 복지까지 확장시킬 계획”이라며 “지난 10년 간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외국인 10만 명을 포함해 70만 명이 넘었다. 앞으로도 참가자 중심인 공익적 역할을 하는 나눔 템플스테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7-8월 전국 118개 사찰을 통해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휴식, 사찰음식 체험, 산사음악회, 어린이 템플스테이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휴식형 템플스테이’는 전북 금산사에서 2박 3일간 진행되는 ‘나눔 쉬고 싶다’ 템플스테이를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이밖에도 공주 전통불교 문화원에서 열리는 ‘뮤직사위’는 음악과 함께 하는 특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강원 삼화사, 인천 전등사 등에서도 휴식형 템플스테이가 운영된다.

나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고 싶다면, 화엄사·천은사·도림사가 함께 진행하는 ‘3사3색 템플스테이’도 이색적인 템플스테이 중 하나다. 또한 공주 영평사에서는 산사음식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열린다.

청소년들이 방학을 맞아 좀 더 건강한 생활 체험이 가능한 선암사 여름불교학교, 굴골사 청소년 화랑 템플스테이, 삼화사의 ‘외국인과 함께 하는 중학영어 캠프’, 직지사의 어린이 캠프 등이 실시된다. (02)2031-2000 www.templestay.com

이은정 기자

청년 경불련 성년 되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창립 20주년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공동대표 혜자, 지현)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발전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경불련은 7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인장에서 기념식을 갖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동해 준 인사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창립 20주년을 축하했다. 감사패는 희망만들기 방과후 교실이 위치한 동대문구의 유덕열 구청장과 이병윤 동대문구 구의회 의장 및 봉사자들에게 수여됐다. 또한 현재 서울시의

회 의원으로 활동 중인 이진화 前 경불련 실무부위원장에게는 공로패가 전달됐다. 이진화 의원은 지난 돌아보며 앞으로의 발전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이 의원은 경불련 초창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산파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진화 의원은 “참 행복하고 꿈만 같다. 10년이면 사라지는 단체들이 많은데 오랜 세월을 사부대중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경불련에서의 활동이 지금 의정활동에서도 좋은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7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봉행됐다. (오른쪽부터) 조계종 포교원장 혜중 스님, 경불련 공동대표 혜자 스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선묵 혜자 스님은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는 불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운동

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이다. 바라리실의 실천이 되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해 달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회당문화축제 올름도를 수놓는다

진각종조 회당 대중사 탄신을 기념하는 회당문화축제 마당이 7월 25-27일 올름도 도동항에서 개최된다.

첫째 날 ‘체험 및 문화마당’에서는 독도와 나라사랑을 위한 소원지 달기, 독도의 날 제정 1000만인 서명운동, 올름도·독도 사진전, 전통 부채 만들기, 풍등 서원

접수 등이 진행된다.

이외 ‘동해 지킴이 위문콘서트’는 올름도 지역 해군, 공군, 전·의경 등을 초청해 대중음악공연 등이 진행되며 ‘독도아리랑 콘서트’에는 안치환 밴드를 비롯해 뉴트리팝스밴드, 가수 이종만 씨, J&B 소울, 소프라노 김양희 씨의 공연이 이어진다. 노덕현 기자

생태·환경 위한 불교 역할 조명

불교 생명사상을 토대로 생태·환경 문제를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단법인 소백산지킴이는 7월 26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불교의 생명사상과 생태·환경을 위한 역할 과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조성택·김영 고려대 교수, 조석희 국회의원환경포럼 자문위원이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소백산지킴이 상임이사 갈수 스님, 황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김중휘 강원대 연구교수, 양기식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업소 소장이 참여한다. (02)723-1559 조동섭 기자

인드라마 하반기 프로그램

인드라마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는 2011년 하반기 인드라마 학림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귀농 희망자를 위한 프로그램인 제29기 불교귀농학교는 8월 25일~10월 20일 매주 화·목 저녁 7시부터 서울 신정동 인드라마교육도장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이론 강좌와 함께 9월 2차례에 걸쳐 의왕시 인드라마 텃밭과 남일 실상사에서 텃밭실습과 현장실습도 이뤄진다.

제2기 협동조합학교는 자본 중심의 경제에 대한 대안 프로그램으로 9월 23일~10월 21일 매주 수·금 저녁 19시 30분 서울 인드라마교육도장에서 실시하며 10월 중 원주 협동조합 현장을 탐방할 계획이다.

서울불교대학원대 김재성 교수가 진행하는 위빠사나, 자애명상 체험과 초기불교 강의도 8월 29일~10월 17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마을 공동체 속 일자리 체험과 청년 희망찾기 프로그램인 청년마을학교는 8월 15-18일 남원 신내면 실상사 일대에서 개최한다. 현장에서는 마을 카페, 목수, 농부, 지역신문, 숲길 안내자, 실상사 작은학교 선생님, 지리산 생명연대 환경지킴이, 친환경매장 운영, 친환경 영농조합 유통관리, 인드라마 마을대학 교육 등을 체험하게 된다. (02)576-1886 이상연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단기출가자 및 행자 모집

- ① 기간 : 일주일 이상 자유, 전액무료
- ① 대상 : 만 50세 미만 남자, 출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① 행자 생활에 준하며 사찰의 기도, 참선, 공부, 율령 등 모든 수행에 동참
- ① 단체 시간외 1인 1실, 식발
- ① 수련 후 바로 출가할 경우 모든 뒷바라지
- ① 대구큰절과 감포 무문관 선방에서수행

※ 행자(예비스님)모집합니다.
문의 : (053)474-8228, 010-2488-8228

무문관 재가수행자 및 스님 모집

- ① 입방 후 문 폐쇄, 하루 한끼 공양 제공
- ① 연령 제한 없음. 남,녀 선착순
- ① 기간 : 보름이상 자유
- ① 입방날짜는 개인별로 함
- ① 동침금 있음
- ① 문의 : (054)753-8228

※ 감포무문관에서 동안거 입방하실 스님 모집합니다.

- 대상 : 법랍 10년 이상인 비구, 비구니
- 선착순 모집
- 문의 : 010-2488-8228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육 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학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인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회주 우학스님의 신간

“하루 한가지 마음공부법”, “감사하고 사랑하며”

쾌적한 범당형 극락 납골 봉안당

문의 : (053)474-8228, 010-6296-0108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